

GLOCALISM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Empowering Sustainabl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Administration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LOCALISM



GLOCALISM

MAGAZINE *about Busan*

2024. JANUARY Vol. 113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01

박형준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바퀴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여러 바퀴로 굴러가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09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 11. 시민행복 15분 도시, 15분 도시 실현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조성
- 12.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가덕도 신공항
- 13. 지산학 협력도시, 부산의 새로운 미래
- 14. 세계적인 금융도시 조성

15

부산광역시 주요 정보

- 17. 사시사철 축제와 관광마이스 도시
- 19. 관광지 정보



23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편

(주)파나시아 이수태 회장

31

지방시대, 미국 편 · 일본 편

- 31. 미국의 혁신 거점 다원화
- 37. 마을 관광거점 재생, 핫플레이스로

43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개선 :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규모 확대

“

지방시대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바퀴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여러 바퀴로 굴러가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바퀴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여러 바퀴로 굴러가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지방시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다.

지방시대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로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다. 지방시대는 기존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바퀴로만 돌아가던 대한민국이 두 개, 세 개의 바퀴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미래에는 이 여러 바퀴가 결국 거대한 하나의 바퀴처럼 균형잡힌 채 굴러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할 것이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 “부산”

부산은 역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품은 도시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천혜의 해양·항만자원으로 충분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다.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부산은 개항기부터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직도 도시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2022년 말에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국내 최대항만인 부산 신항만과 특화된 산업단지, 기간산업과 전략산업 등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자동차·조선·해양·기계부품 산업과 같은 제조업의 기반이 탄탄한 도시이다.

지금 부산은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이룸으로써 부산시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깊은 역사와 높은 도시 가치로 각종 도시평가에서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 브랜드 지수 뿐만 아니라 세계 스마트도시



순위에서 아시아 상위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했으며, 영국 컨설팅 기관인 지엔사(Z/Yen)가 발표한 세계지능형센터지수(SCI : Smat Centres Index) 평가에서 아시아 3위, 국내 1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금융지수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 부산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 동북아에서 도시단위로 유일하게 네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 2023년 여행할만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도시 선정되었고,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 ‘트립닷컴’이 주관하는 ‘2023년 인기 급부상 여행지 TOP2’에 부산이 오스트리아 빈과 나란히 세계의 최고의 자리에



글로벌 허브로 재탄생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살고 싶은 시민 행복도시를 구현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를 조성해 부산 먼저 대한민국의 도약과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 새로운 발전축 구축

대한민국은 수도권 하나의 성장축으로는 도약에 한계가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의 새로운 발전축이 구축된다는 것은 서울이 수도권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부권 활성화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시작이 부산의 북항과 가덕도 신공항, 금융단지 산업은행 이전이 될 것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개항은 우리 부산과 남부권의 번영을 위한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하여 부울경

이름을 올렸다. 또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 유닛(EIU)이 내놓은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6위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관광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시대 전략은 결국 혁신거점을 통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자율적인 지역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부산은 이러한 지방시대에 대응하여 부산만의 장점을 살린 지방시대 과제를 발굴하고 지산학의 유기적 협력과 아시아의 새로운 글로벌 허브로 재탄생할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가진 부산이 지방시대를 맞아 아시아의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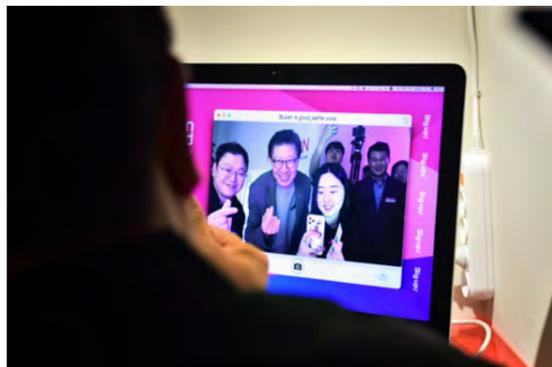
초광역 협력사업을 통해 마련된 지역 경제와 생활권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체적 전략이 시행된다면 부울경을 시작으로 남부권의 성장과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부산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신공항 건설, 부산형 글로벌 트라이포트 구축,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 글로벌 금융 허브도시라는 전략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해 도약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은 기존 항만물류 중심에서 항공물류까지 확대한 부산형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으로써 부산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해상 물류 산업에 디지털 금융을 융합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산업은행 이전, 금융기관 집적 등 금융중심지를 완성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핀테크 기업 등 디지털 밸리 조성 과 지산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 곳곳에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글로벌 허브도시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허브 도시추진단' 출범과 함께 본격적 법률안과 도시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물류와 산업 그리고 금융, 문화관광, 신산업 육성 과 지산학 협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나가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허브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



산업생태계의 혁신적 변화

부산시는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확대 기조에 대응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 첨단기술에서 녹색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추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민선8기 기업투자 유치실적이 8조 6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보기술(IT), 지식서비스 기업 투자로 빠른 투자이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산업생태계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바이오기업들이 점차 부산을 찾아오는 추세이다. 북항, 에코델타시티, 가덕도 등 산업단지의 개발과 문화관광 콘텐츠 집약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산학협력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지방시대에 대응한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진행되는 중이다. 기회발전특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추진전략 마련,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연계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금융블록체인, 전력반도체, 전자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모델을 개발하여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산업체질 전환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학 협력을 통해 부산만의 장점을 살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생태계 혁신적 변화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 21개 대학과

344개 연구기관 확보 등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차원의 기업유치, 산학협력 등을 통한 기업과 인재가 융합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시와 부산시 교육청 간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맞물린 지방시대를 기점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15분도시 조성과 촘촘한 복지,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우리시민들이 부산의 성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숨가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BIG Dream' 부산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시민행복 15분 도시,
 15분 도시 실현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조성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가덕도 신공항
 지산학 협력도시, 부산의 새로운 미래
 세계적인 금융도시 조성

시민행복 15분 도시, 15분 도시 실현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조성

15분도시 본궤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생활양식이 보행생활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5분도시는 주거·업무·여가·상업·교육·의료 등 생활필수기능을 15분 이내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부산은 '21.4월 박형준 시정 출범과 동시에 일상의 편리함을 넘어 글로벌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가속화 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브랜드 정책으로 15분도시를 제1공약으로 채택해 역점 추진 중이다. 그 동안 부산시는 기본구상을 기반으로 비전과 발전전략, 조성계획, 해피챌린지 전략계획 등 중층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14개 실국본부 27개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당장의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정책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제1~2차 해피챌린지, 비전투어 시즌1~2 등 전략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해피챌린지 전략 추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앵커시설 조성

15분도시 대표생활권 조성사업인 해피챌린지는 유형별 생활권을 3~5개 정도 선정해 길·공원·공간을 테마로 1개 생활권 당 3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양한 실험적 정책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15분도시를 가시화하고 우수 정책을 유사 생활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과제다. 현재 부산진구 당감개금권, 사하구 신평장림권, 사상구 괘법감전권 등 3개 생활권을 대표생활권으로 선정하고 15분도시 조성을 위해 착수했다.

해피챌린지와 함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앵커시설 조성사업도 활발하다. 그 중 대표적인 시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과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하하센터'다. '21년 착수한 들락날락은 올해로 24개소를 개관·운영 중이며, '30년까지 총3,750억원을 투자해 3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22년 착수한 하하센터는 올해 3개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470억원을 투자해 지역 내 62개 생활권별 각1개씩 조성할 계획이다.

15분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도시 핵심 정책

아울러, 15분도시는 단순히 정책수단을 넘어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커뮤니티를 발견, 그 속에서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꿔보자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주민의 창구, 공유공동체 플랫폼 등 15분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15분도시가 일상의 편리함은 물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의 대안을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가덕도 신공항

회복 활성화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길 핵심정책으로 확신하고 부산에서 성공해 부산부터 15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 중이다.

첫 번째 미래,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 공항

부산에는 김해국제공항이 있지만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고 활주로가 짧아 중단거리 위주 노선만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을 찾는 외국인의 불편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직항편은 고사하고 김해공항의 커뮤(항공기운행제한시간)를 피하기 위해 경유지에서 십수시간을 기다리거나 항공기가 내리지 못하고 공항 상공에서 대기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2029년,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하면 미주와 유럽을 포함한 130여 개의 노선이 개설되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원하는 시간 대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노선도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3,500m의 활주로를 갖춘 관문공항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래, 글로벌 물류 허브

가덕도신공항의 두 번째 미래는 물류 기능이다.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연계하면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두바이는 20km 반경 내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추고, 두 지점을 연결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두바이의 제벨알리항은 알막툼국제공항과 8차선 고가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벨알리항에서 통관된 화물은 세관 통관 없이 4시간 안에 환적되어 알막툼국제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운송되고 있다.

부산시도 이와 같은 물류시스템을 가덕도신공항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관문공항으로서 충분한 시설규모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고 부산신항, 그리고 배후지역의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연결하는 '부산 물류 회랑'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 번째 미래, '남부권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가덕도신공항

지방시대의 핵심은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부산은 혁신을 위한 앵커시설로 가덕도신공항을 두고 있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추진 중인 초광역 경제동맹의 협력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울경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비롯해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에 이르기까지 가덕도신공항을 빼고는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들로 이루어 있기 때문이다.



지산학 협력도시, 부산의 새로운 미래

지산학 협력으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대학과 지역이 공동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은 취임 이후 대학과 기업이 살아야 부산이 산다는 일념으로 대학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산학 협력을 시정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산은 지산학 협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고 있다.

제1차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안 마련

지산학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제1차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안(2023년~2027년)'을 마련하고 기업·대학·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산학 협력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지산학 협력도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 20개 추진과제, 97개 주요사업에 5년간 1조 993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산학 협력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RISE 시범지역 선정, 제1호 글로벌 대학 선정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부산권 파워반도체 공유대학 운영,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하여 이론-실습 학기를 반복(2년)하여 현장에 즉시 채용가능한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제1호 글로벌 대학(부산대-부산교대) 선정 등 지산학협력 기반 혁신 사업들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대학들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을 노력하고, 글로벌대학 추가 확대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등을 통해 지산학협력 허브도시로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조성

디지털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D(digital)-Valley 조성

부산의 글로벌 금융도시 위상은 높아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부산은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2014년 문헌금융단지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등 28개 금융기관이 입주하였다. 2018년에는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부대지원 시설 및 업무용 시설을 조성하였다.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3단계 사업은 핀테크·AI·빅데이터 등 디지털금융기업 170여개사 입주가 확정되었고 기업·교육·네트워킹·투자(보증) 등 업무지원 기능을 갖춘 디지털밸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금융중심지 글로벌 인지도 상승

2022년 하반기(9월) 부산은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기관 지엔(Z/YEN)사에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에서 전 세계 126개 금융도시 중 29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부산의 GFCI 지수는 2014년 3월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으나 2016년 3월 38위, 2020년에는 51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6년 6개월만인 2023년 9월 20위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지엔사는 부산시가 BIFC 3단계 개발과 해외 금융기관 지속 유치, 블록체인 특구 내 핀테크 산업 육성,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을 통한 해외 마케팅 등으로 아시아 금융허브 기능을 강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최근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D-스페이스 BIFC'에 외국계 금융기관인 BMI그룹 한국사무소, 요즈마그룹 코리아, 한국시티은행 3개사를 유치하였고, '20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 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1인 가구 이주율은 81.2%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게 나온 것도 이유일 것이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 완성

앞으로 부산광역시는 BIFC 3단계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금융 업무시설 인프라 확충과 함께 디지털 금융 등 금융신산업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키워 나갈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제 금융기관 이전 및 핀테크 허브기업 집적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 디지털 금융생태계가 획기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문화관광 도시 부산

부산광역시 주요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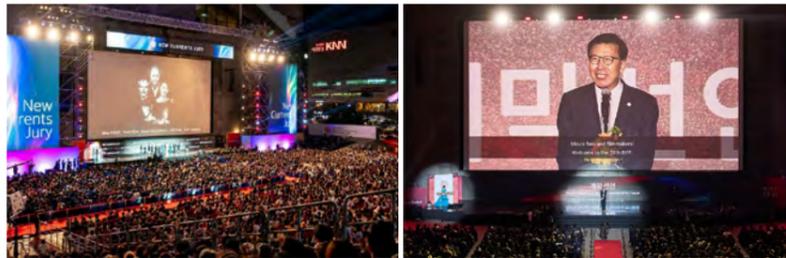
부산은 산, 바다, 강 등 천혜의 자원환경과 세계적 수준의
호텔과 쇼핑 휴양단지 등의 대도시 인프라 공존하는
유니크한 아름다움을 가진 도시



사시사철 축제와 관광마이스 도시

영화로 물드는 부산의 10월, 부산국제영화제

10월이 되면 부산은 또 하나의 바다에 빠져들게 된다. 바로 영화의 바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바로 그것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과 남포동 BIFF광장을 중심으로 부산전역에서 치러진다. 센텀시티의 메인행사는 전 세계에서 출품된 다양한 영화,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 태어난 전용상영관 영화의 전당, 편리한 교통 등의 이점을 살려 '깔끔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남포동의 BIFF광장에서는 시민과 영화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비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상 가까운 부산의 다양한 명소들에서 영화를 즐기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동네방네비프'가 펼쳐진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지스타는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변화하는 게임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게임전시회이다. 19년째 개최되고 있는 지스타는 지난 2009년부터 부산에서 열렸다. 지스타 부산 개최 초기인 2009년 24개사, 매출 100억 원대에 불과하던 부산 게임산업은 최근 140개사, 매출 1577억원까지 성장했다. 2023년 42개국 1037개사 참여한 가운데 전년 대비 13% 늘어난 3328부스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게임전시 체험 비즈니스 상담, 컨퍼런스, 게임 잡 콘서트, 이스포츠행사, 게임 콘텐츠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종합 게임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전시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신작들로 2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지스타를 찾았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불꽃피날레, 라이팅드론쇼 등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 01
- 02

01. 부산국제영화제
02.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부산불꽃축제

“세계 속 빛으로 물들인 부산의 가을, 지상최대 불꽃의 향연”

2005년 APEC정상회의 기념행사 일환으로 시작된 부산불꽃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부산 대표 축제로서 어느덧 18회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11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두고 'Dream-꿈이 이루어지는 무대'라는 주제로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25인치 초대형 타상불꽃과 광안대교를 활용한 나이가가라, 컬러이과수 불꽃 등 부산만의 시그니처 불꽃을 통해 부산의 뜨거운 열정을 불꽃으로 표현했다.

더불어 화려한 불꽃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스토리텔링과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이기대, 동백섬 앞까지 3point 연출로 부산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였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자연과 사람, 음악이 즐거운 페스티벌”

2000년 시작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록 페스티벌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인디밴드들과 국내외 최정상 밴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2023년에는 10개국 16개팀의 해외밴드가 참여하여, '국제' 록 페스티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그러다 보니, 국내외 록 마니아들이 1년 내내 이 축제를 기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넓고 푸른 잔디가 광활하게 펼쳐진 삼락생태공원의 페스티벌 장으로 들어서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듯 이틀간의 짜릿한 음악 여행이 시작된다.



- 01
- 02

01. 부산불꽃축제
02.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의 역사를 간직한 관광지

임시수도기념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치의 최종 결정과 대외적인 외교업무가 이루어진 장소다. 옛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전시관으로 개관했다. 전시관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피난민의 생활상, 임시수도 시기 부산만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보여주는 상설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UN기념공원

195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기념묘지 지명으로 세계 유일 묘지로,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정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테마를 갖춘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고 공원 내 조성된 녹지공간은 도심 속 자연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근현대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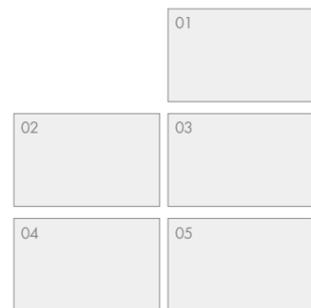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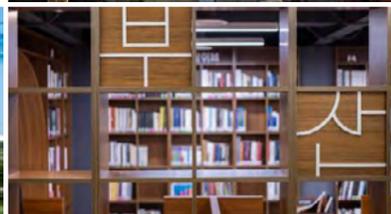
일제감정기에 동양척신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신청된 이 건물은, 해방 이후 약50년간 부산미국문화원으로 사용되었다. 오랜기간 외세 침략의 상징이었던 이 건물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18년간 부산근대역사관으로 운영되었으며, 2023년 부산 원도심의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 개관되었다.

감천문화마을

1950년대 6.25 피난민의 삶의 터전에서 시작된 감천문화마을은 원래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부산다운 여행지다. 산자락을 따라 늘어선 집들과 미로 같은 계단 골목길, 알록달록 아름다운 색을 자랑하는 집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부산의 마추픽추로 불린다.

흰여울문화마을

해안선과 나란히 위치해 걸으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해안가 절벽 끝바다를 따라 난 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은 흰색과 파란색의 작은 집들의 모습이 마치 산토리니를 닮았다.



- 01. 임시수도기념관
- 02. UN기념공원
- 03. 근현대역사관
- 04. 감천문화마을
- 05. 흰여울문화마을

부산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

을숙도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삼각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넓은 주차장, 한적하고 여유있게 둘러볼 수 있는 내부시설이 갖추고 있다.

아미산 전망대

탁 트인 바다와 모래섬, 낙조 등 천혜의 전경을 즐길 수 있으며, 황금빛 낙조를 볼 수 있는 일몰 명소로도 손꼽힌다. 부산지질유산에 대한 전시 공간도 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커다란 통유리로 지어져 붉은 낙조와 함께 철새들의 날갯짓을 감상하기에 딱이다. 자율 관람을 위한 다국어 자동안내기와 철새 관측을 위한 야외용 쌍안경을 비치해뒀다.

삼락생태공원

낙동대교 아래의 낙동강 둔치 좌우측으로 펼쳐진 광활한 강변공원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로 철새를 위한 습지, 철새먹이터를 만들 수 있다.



부산의 바다를 만끽할 세븐비치



- 01. 을숙도
- 02. 아미산 전망대
- 03. 낙동강하구센터
- 04. 삼락생태공원

해운대

전 국민의 휴양지로 사랑받는 해운대 특급호텔과 음식점, 아쿠아리움 등 해운대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는 요소는 너무나도 풍부하다. 특히 피서철 해운대를 찾는 인파는 100만명이 넘을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다.

광안리

광안리해수욕장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와 함께 아름다운 경을 자랑한다. 해수욕장에서는 광안대교 레이저쇼, 드론쇼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공연을 제공한다. 매년 부산불꽃축제 또한 이곳에 성대하게 열린다.

다대포

일출과 일몰 조망지로 손꼽히는 곳 자연이 주로 황홀경을 즐길 수 있다, 수심이

얇고 수온이 차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고, 패들보트, 서핑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시원한 물줄기와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꿈의 낙조분수도 즐길 수 있다.

송도

송도해수욕장은 대한민국 제1호 해수욕장이자 최초의 해상케이블카가 있는 곳이다. 2017년 6월 21일, 29년만에 운영을 재개하여 지금은 서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송정

부드러운 모래와 얇은 수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수욕장, 맑은 물과 잔잔한 파도로 서핑 초보자도 쉽게 서핑을 배울 수 있다.

일광

해안선이 원을 이루며 펼쳐져 해변이 한눈에 들어오며, 아늑함을 자랑한다. 백사장 왼편에는 소나무 숲인 강송정이 있어 해마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다.

임랑

넓게 깔린 백설 같은 백사장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 오션뷰 카페들이 즐비해 있어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기장의 4대 고찰 중 하나인 장안사와 묘관음사가 있다.



- 01
- 02
- 03
- 04
- 05
- 06

- 01. 해운대
- 02. 광안리
- 03. 다대포
- 04. 송도
- 05. 송정
- 06. 일광

**부산을 즐기는
체험 관광명소**

롯데월드 어드벤처부산

야의 테마마크인 롯데월드 부산은 '동화 속 왕국'을 테마로 6개의 존과 17종의 매력적인 어트랙션을 운영한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으로 가자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파란 하늘과 바다가 숨을 쉬는 곳! 해운대 미포, 청사포, 송정에 이르는 4.8km 구간을 30여분 정도 열차를 타고 동부산의 수려한 해안을 감상할 수 있다.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 두가지로 운영한다.

스카이 루지

2021년 7월 초 개장한 스카이라인 루지 스카이라이드를 타고 정상에 위치한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루지 카트를 타고 총4개의 트랙 2.4km 구간을 내려오는 어드벤처 프로그램이다

엑스더스카이

'BUSAN X the SKY'는 국내 두 번째 높이(411.6m)인 해운대 엘시터 랜드마크타워에 위치하고 있다. 드넓은 해운대의 오션뷰와 부산의 화려한 시티뷰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전망대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

송도의 푸른 바다 드넓게 펼쳐진 가운데 그림처럼 하늘 위를 가로지른다, 가장은 높은 곳에서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 01
- 02
- 03
- 04
- 05

- 01. 롯데월드 어드벤처부산
- 02.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 03. 루지
- 04. 엑스더스카이
- 05. 송도해상케이블카



In search of Glocal Innovators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편

최수현(협의회 대학생 서포터즈 18기)

기술로 세계로 미래로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기업,
(주)파나시아 이수태 회장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기업, (주)파나시아

(주)파나시아는 1989년 5평 남짓한 공간에서 범아정밀엔지니어링으로 시작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도전정신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조선기자재를 '국산화' 하겠다는 다짐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산업 기술혁신에 앞장선 업체들에게 수여하는 장영실 상을 트리플로 수상하였으며, 수출 성과를 인정하는 부산수출대상, 삼억불 수출탑을 달성하였다. 독자적인 기술로 대기, 수질환경과 수소사업의 솔루션을 제시하여 탄소중립의 해양산업 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친환경 설비 대표기업으로 성장했다.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원천기술을 보유한 파나시아의 기업가치는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가 평형수 내의 미생물로부터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평형수 처리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효하면서, 필터와 자외선으로 미생물을 살균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기술을 가진 (주)파나시아는 급속도의 성장을 이뤘다.

제조, 운송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대기로부터 분리시키는 탄소포집저장장치(CCS) 기술 역시 (주)파나시아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올해 4월 HMM, 삼성중공업, 한국선급과 함께 선박 이산화탄소 포집 액화기술(OCCS)의 실증연구를 체결했고, 설계부터 제작·설치·시운전까지 담당하기로 했다.

1989년 3명에서 시작해 창립 34년 만에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은 (주)파나시아의 성장 동력을 알아보기 위해 (주)파나시아 이수태 회장과 인터뷰를 나눠보았다.



융합, 도전, 혁신

이수태 회장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컴퓨터공학석사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기업의 경영자로서 학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 대학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학문을 탐구하는 그의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이수태 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여 새로운 융합을 만들어 내는 것을 미래를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생각한다. 익숙함보다는 어렵더라도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이수태 회장의 혁신 정신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주)파나시아는 중소, 중견 제조기업 도전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기술의 국내화를 위해



이수태 회장의 첫 사회 진출은 현대중공업이었다. 입사 당시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일본의 기업에서 도면을 수입해와 강제를 용접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선박에 사용되는 엔진과 각종 펌프 등 조선 사업에 필수적인 기자재들 또한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수태 회장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로서 업무 중 기기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발견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상부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도면을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온 탓에 도면 수정을 위해서는 일본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이수태 회장은 조선기자재 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이타자리 자리아타(利他自利 自利利他)’. 즉,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라는 이수태 회장의 평소 철학에 따라, 남을 도울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자 경영자로서 첫발을 뗀다.

왜 부산인가?

부산은 이수태 회장이 태어난 곳이자 대학시절을 보낸 곳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라는 명성과 더불어 주변 지역인 울산, 거제, 통영과 어우러져 우리나라 조선 사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선산업의 핵심부품은 부산 경남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파나시아를 경영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로 고려됐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21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 인재들을 공급받고 지.산.학(지방자치단체, 산업, 대학)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산에서 사업의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미래의 성장동력, 수소에너지

㈜파나시아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수소 사업을 택했다. 작년 수소 법 발효 이후 국내 수소추출설비 업체 중 처음으로 수소 용품 제조, 사업의 개시 허가를 받아 본격 수소사업을 시작했다. 수소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지는 꽤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인식은 수소에너지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수태 회장은 “수소 원자는 제일 가벼운 기체로 공기중으로 배출되면 바로 날아간다. LPG(액화석유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LNG(액화천연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가벼워 폭발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수소는 LNG보다도 가벼워 수소에너지 자체의 위험성은 제로에 가깝다.

대부분 수소의 폭발사고는 수소를 담은 압력용기의 문제로 발생하고, 우려하는 수소탄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수소에너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파나시아는 국민의 인식 개선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소의 안전성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의 가치

기술의 국내화 과정에서 인재 육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이수태 회장은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독서경영’을 사업 초창기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독서능력이 길러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선견’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독서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수태 회장은 책을 나누어 주고 독후감을 쓰게끔 했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 전문학교 졸업생들을 4년제 대학에 진학시키고, 대학원 진학까지 지원하였고 이는 직원 개인의 자신감 고취뿐만 아니라 배움을 통한 겸손과 학문적 욕심, 재직회사 대한 충성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빠른 발전에 발맞추고 관찰의 시각을 길러 시장의 선점을 자연스럽게 이룩하여 현재의 ㈜파나시아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파나시아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 친환경 산업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 최초로 부산대학교와 계약하여 단순 기계공학이 아닌 재료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에 필요한 기술이 모두 융합된 ‘그린설비융합전공’ 학과를 신설하였고, 지난 9월 첫 석사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와 같은 기업 맞춤형 계약학과는 보통 대기업이나 중앙정부 관련 기관의 주도로



**제조업의 혁신,
스마트팩토리**

만들어지곤 하였기에 ㈜파나시아의 이런 행보는 혁신적인 산학협력의 대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수태 회장의 혁신 정신은 제조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3D 직종으로 꼽히는 제조업은 갈수록 종사자가 줄어들고 있어 업계의 위기설까지 돌고 있었다. 이에 이수태 회장은 중소기업과 3D업종에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시각을 가졌다. 미국의 리스트벨트가 발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기 시작했고, 중견기업 최초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스마트팩토리는 AI 딥러닝을 통해 기기들이 스스로 소통하고 개선사항 입력을 통해 설계, 관리, 생산, 물류 작업까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파나시아는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함으로써 UV램프의 일일 생산량을 80개에서 300개로 증대시키고, 불량률도 6.43%에서 0.96%로 개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제조원가 절감과 함께 작업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

더 나아가 이수태 회장은 (사)부산유비쿼터스사물인터넷협회의 (명칭변경: (사)부산인공지능융합기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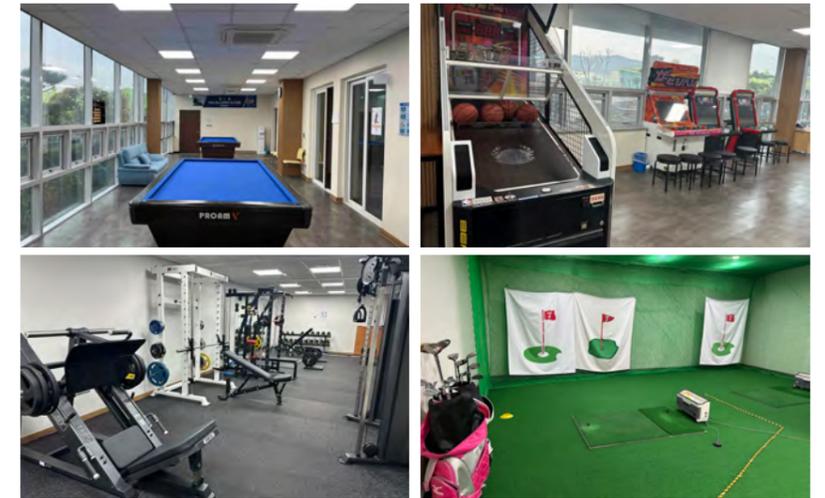
선박에 설치된 파나시아 제품의 데이터를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문제를 예방, 진단할 수 있는 원격관제시스템도 구축했다.



**부산의
BTS(BUSINESS
TOP STAR)로**

㈜파나시아는 2030년까지 수출 1조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효를 시작으로 해양산업의 환경적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파나시아는 탄소포집기술을 활용하여 약 34조의 가치를 가진 친환경 해양산업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수태 회장은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 현재의 파나시아가 있으며,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환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지역공동체와도 협력해야 하는 존재”라며 부산의 산업을 이끌고 지역사회에 가치를 환원하는 부산의 BTS(BUSINESS TOP STAR) 즉,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내에서도 이수태 회장의 목표는 뚜렷했다.

㈜파나시아의 기업 목표 중 하나는 '해피 워크 캠퍼스(happy work campus)'이다. 하루 중 3분의 1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단순히 노동의 공간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개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며, ㈜파나시아가 행복한 일터이자 배움의 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월간 지방시대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수태 회장은 지방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되, 지방의 예산, 조세, 교육 등은 개별 지자체의 자유에 맡겨야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이 가능하다.”라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어 현재의 지방시대를 넘어 지방연방의 시대가 오길 바란다면, 부산지역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In case of Glocalism i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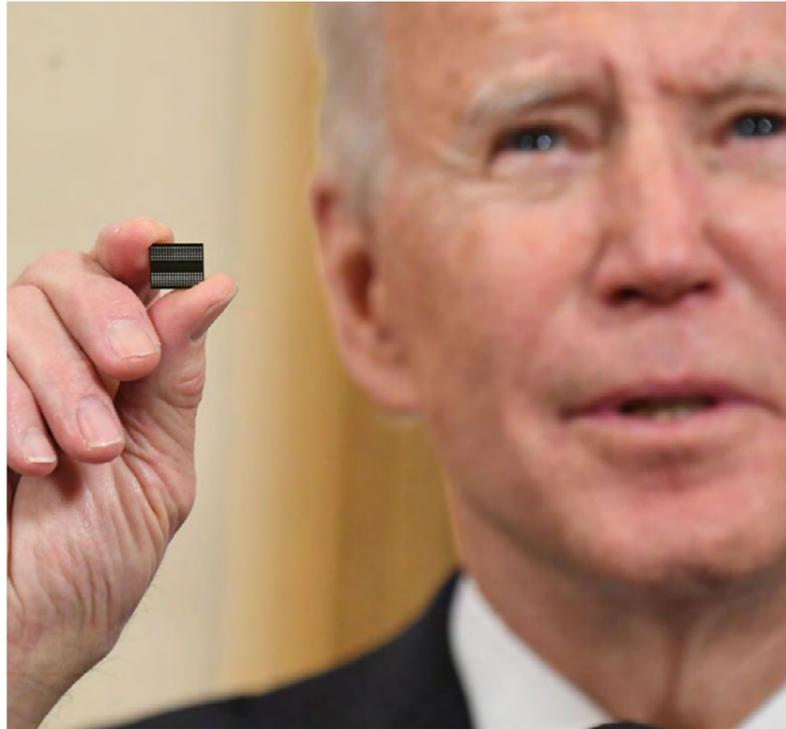


지방시대, 미국 편

이준섭(KOTRA 시카고무역관 과장)

미국의 혁신 거점 다원화

미국, 혁신 거점을
통해 중점산업
육성을 추진하다



미국은 개혁의 역사를 보유한 국가이다. '골드 러시'로 인해 동부의 뉴요크에서 출발하여 광활한 중서부 평야를 지나 서쪽의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일부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점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통과 물자의 중심지가 되게 되었고, 이런 역할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모이게 했다. 마을은 점차 규모가 커져 도시가 되게 되었고, 그 중 일부 도시는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 경제의 중심지 뉴욕과 제조업의 중심 시카고 등 중점 역할이 뚜렷한 형태를 띄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은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중점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리노이의 제조 중장비, 미시건의 자동차, 실리콘밸리의 IT 등이 있다. 이처럼 일부 도시, 조금 더 확장해서 지역 내 중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해당 지역으로의 기술 및 인력과 자본의 집적 효과를 야기하여,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이와 같은 흐름은 최근 미국 내 청정 에너지 및 첨단 산업의 기술 개발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인프라투자법(IIJ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바이든 정부는 지역별 '혁신 거점'을 기반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첨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의 일환으로 에너지부(DOE)과 경제개발청(EDA)는 '23년 하반기 다수의 테크 허브(Tech Hub) 및 수소 허브(Hydrogen Hub)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짧게는 '25년, 장기적으로는 '30년 이후까지 해당 산업 내 기술 개발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기후 대응
방안으로의
수소 허브



바이든 정부는 청정수소 전략과 로드맵을 통해 연도별 청정수소 생산량 목표를 2030년 1,000만 톤, 2040년 2,000만 톤, 2050년 5,000만 톤으로 설정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7개의 수소허브는 향후 2030년 기준 총 청정수소 생산량 목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톤을 생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허브는 동부, 중서부, 서부, 남부 등 각 지역별 중점 산업에 맞추어 선정되게 되었다.

[지역별 수소 허브 개요]

명칭	지역	일자리 창출(개)	활용 계획
Midwest Hydrogen Hub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1.3만 ↑	철강/유리 가공 및 대형운송/항공연료
Heartland Hydrogen Hub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3천 ↑	농업 비료 생산 및 지역 사회 에너지 공급
California Hydrogen Hub	캘리포니아	22만	대중교통, 대형트럭 운송 항만 운영(아마존 참여)
Pacific Northwest Hydrogen Hub	워싱턴 오리건 몬타나	1만 ↑	농업, 산업, 항공, 항공 및 대형 운송
Appalachian Hydrogen Hub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2천 ↑	
Mid-Atlantic Hydrogen Hub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2만 ↑	석유 인프라 및 대형 운송수단과 열병합 발전
Gulf Coast Hydrogen Hub	텍사스	4.5만	암모니아/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연료 전지트럭, 산업공정 해양 연료

차세대 산업 육성
부담을 지역별로
분배한 테크 허브



수소와 유사하게 바이든 정부는 최근 부상중인 AI 자율 시스템과 양자 공학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테크 허브 및 연구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이는 Chips Act(22년 8월)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기술 혁신에 있어 자산·자원·역량·잠재력 등을 갖춘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이다.

[산업별 Tech Hub 개요]

산업명	지역	기대 효과
자율시스템	몬태나, 로드아일랜드, 메사추세츠, 오클라호마	육지, 공중, 해상에서 자율 시스템 배치
양자 컴퓨팅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센싱, 통신, 컴퓨팅 능력을 통한 기술 변화 선두
정밀 의학	버지니아, 뉴햄프셔, 일리노이, 미주리, 캔자스, 인디애나, 푸에르토리코	필수 소분자 약물, 혁신적인 생물학적 제품, 재생 피부 및 의료 기기의 생산 확대
바이오 기술	위스콘신, 메릴랜드, 앨라배마,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저지, 미네소타, 위스콘신	개인 고유의 유전자, 환경, 이력에 맞는 약물, 기기 및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 고취
청정 에너지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뉴욕	에너지 생산, 저장 및 전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보 강화 및 기후 변화 대응
광물 공급망	미주리, 네바다	미래 제품, 인프라, 환경에 필수적인 원소와 광물 추출 및 처리
반도체 제조	텍사스, 오클라호마, 오리건, 버몬트, 뉴욕	신 트랜지스터 재료, 모듈식 제조 및 패키징, 미세 유체 역학에서의 칩 생산 생태계 성장
첨단 제조	오하이오, 메인, 아이다호, 워싱턴, 오리건	항공 여행의 전기화, 탈탄소 건설, 플라스틱 폐기 등에 기여

주1: 전략개발보조금(SDG: Strategy Development Grants) 지급은 ● (18개)
주2: Designee HQ 20곳(●) 및 Designee and SDG Recipient HQ 11곳(●)

미국 허브
다원화의 교훈



이처럼 미국은 허브 다원화를 통해 거점별로 기술 개발을 모색하여 산업 발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특정 도시에 쏠리지 않고, 광활한 영토 내 다수 지역을 각 특색과 산업에 부합하게 발전시키는 지역균형 발전의 대표 사례로 볼수 있다. 수소 및 테크 허브의 사례는 지역별 특색에 부합한 산업 발굴을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자연스럽게 자본과 인력이 모여 기술 개발의 효율성, 장기적으로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In case of Glocalism in Japan



지방시대, 일본 편

이광영(협의회 일본사무소 서기관)

마을 관광거점 재생, 핫플레이스로
- 지역협력대 <캠프라이프·코디네이터> -

최대 관광거점
〈겐지이노 모리〉

후쿠오카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현 동부 내륙부에 위치한 이름에 '색'만 새겨진 전국 유일의 지자체 〈아카무라(赤村:빨간 마을)〉. 인구 불과 3,000명. 편의점도 하나 없고,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라고는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아는 사람만 안다는 농촌에 있는 것이 최대 관광 거점 〈겐지이노 모리(원할아버지 숲)〉이다.



창립30주년을 맞이한 복합시설 〈겐지이노 모리〉(출처 : <https://www.genji.com/>)

캠핑장, 천연온천, 숙박시설, 레스토랑, 다목적 홀을 가지고 있는 〈겐지이노 모리〉는 후쿠오카 기타큐슈 도시권에서 접근성이 좋으며,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는 도보 2분 거리에 있다. 현 내 굴지의 면적을 자랑하는 캠핑장에는 청류가 흐르고 초여름에는 반딧불이 날아다닌다.

〈겐지이노 모리〉는 일자리 창출, 관광 시책, 건강 증진, 자연학습을 담당하는 마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점이다. 온천 입욕세는 정화조 정비비로 충당되며, 물과 토양, 농업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있는 식자재가 손에 들어오고, 그런 환경을 찾아 관광객이 반복적해서 찾아온다." 그러한 '지역 내 순환'을 만들어내는 곳이 〈겐지이노 모리〉라는 시설이다.

행정이 출자하여 창립한 1992년 이래, 피크 때에는 연간 약 40만명이 방문해, 오랫동안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후화나 유사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등의 영향으로 손님 발길은 뜸해지고 경영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비수기인 겨울 방갈로에서는 빈자리가 눈에 띄어 〈포장〉은 있어도 〈알맹이〉가 없는 상태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하려고 해도 노하우가 없으면 일손도 부족하여 시설 운영은 암초에 걸려 있다.

〈캠프 애호가〉를
코디네이터로 채용



2020년에 완성한 10명이 숙박가능한 돔 하우스. 내부는 코디네이터에 의한 인테리어 (출처 : <https://www.genji.com/>)

마을 활성화에는 〈겐지이노 모리〉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겐지이노 모리〉가 활성화 되어야 말그대로 〈아카무라〉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집·채용한 것이 〈캠프 라이프·코디네이터〉의 지역 살리기 협력대이다.

〈겐지이노 모리〉를 거점으로 캠핑 체험을 기획·제공해,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로 만든다. 이 미션에 도전한 것은 민간 기업에서 디자인이나 브랜딩 경험이 있는 3명의 정예들이었다. 대형 아웃도어 용품 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지역살리기 협력대 〈캠프라이프 코디네이터〉 3인방

공통적인 것은 〈손꼽히는 캠핑 애호가〉라는 것. 취미를 스킬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살린다. 2020년 5월 〈캠프 라이프 코디네이터〉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가장 큰 과제는 비수기에도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우선 홈페이지를 시대에 맞는 형태로 업데이트하여 인터넷 예약을 시작하고 SNS를 개설해 신속하고 친근한 정보발신 실천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목표를 크게 웃도는 7,000명을 달성했다.



아카무라 후루사토 타케야카리(고향의 죽나무 불빛)(출처 : <https://www.genji.com/>)

다음으로 이벤트 개최했다. 2021년, 2022년에 실시한 〈아카무라 후루사토 타케야카리(고향의 죽나무 불빛)〉는 겨울 최대 프로젝트로 부지내에 자라고 있던 150개의 대나무를 잘라 구멍을 내고 900개의 LED 전광장식을 통한 부드러운

불빛은 주위 자연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매력을 낳았다. SNS에서의 확산을 내다보고 '인스타각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 포토스팟도 준비했으며 제작에는 주민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미디어에서도 기사화되어 <겐지이노 모리>의 겨울을 상징하는 이벤트가 되었다.

여기에 소개한 것은 극히 일부이다. 제작자가 시연 판매하는 <캠핑 기어 플리마켓>, 아웃도어 애호가를 모은 콘카츠(婚活:결혼을 하기 위한 활동, 만남) 이벤트 <콘카츠 데이 캠프>, 패밀리층을 겨냥한 「겐지이노 농장 농업 체험」, <빈손으로 즐기는 캠핑장>을 위한 캠핑 상품 유료 렌탈 사업, 선물로도 PR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조미료 <겐지이노 모리 향신료>의 개발, 숙박 시설의 내부공사나 인테리어의 DIY 등 <캠핑 라이프 코디네이터>들의 공적은 헤아릴 수 없다.



<겐지이노 모리 농장>에서 계절야채 수확 등 농업체험<출처: <https://www.genjii.com/>>



개발한 만능 아웃도어 조미료 <출처: <https://www.genjii.com/>>

주말에는 가동률 100% 전국에서 팬들이 오는 인기시설로

현재는 학생이나 패밀리, 여성 솔로 캠퍼 등 지금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층의 손님이 증가했다. 주말 가동률은 100%로 연일 캔슬 대기 상태이다. 한산해서 골머리를 앓던 겨울철에도 일찍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설 내 온천 이용자는 연간 3만 명 정도 증가했다.

<캠핑 라이프 코디네이터>의 활약에 더해 '밀폐'를 피하는 코로나19사태와 캠핑 애니메이션 히트로 인한 아웃도어 붐도 등에 힘입어 관광청이 후원하는 <온천숙소·호텔 총선거 2021>에서 <스포츠·레저부문>에서 전국 1위, <BBQ 부문>에서 전국 2위를 더블 수상. 시대에 뒤쳐져 있던 캠핑장은 친근해서 찾기 쉽고, 초보자도 경험자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전국으로부터 팬이 모이는 인기 장소로 성장 하였다.

30년차 대전환과 브랜딩, 다음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캠핑 라이프·코디네이터>는 <겐지이노 모리>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고 실천했다. 앞으로 <겐지이노 모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다. 세 사람이 남긴 가장 큰 재산은 새 바람을 몰고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차례로 제안하고 각자가 잘하는 것을 살리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사물에서 사람으로 가치관은 바뀌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관광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관광으로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겐지이노 모리>에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로 만드는 것,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세 사람이 뿌린 씨앗을 마을 전체에서 키워가는 것. 그것이 <겐지이노 모리>와 그 시설 만들기를 서포트하는 행정의 목표이다.

브랜드력을 높여 장기적인 팬을 확보하고, 관계 인구를 창출하는 <순환형 관광>을 목표로 하는 이곳은 2023년 5월에는 새롭게 2명의 <캠핑 라이프·코디네이터>가 착임했다. <아웃도어×지역 활성화>를 실천한 아카무라와 <캠핑 라이프·코디네이터>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출처: <https://www.genjii.com/>>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박관규 센터장(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개선 :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규모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의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인상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5%p씩 추가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글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변경 내용을 소개한다.

지방투자 활성화의 중요성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와 인구는 물론 문화·여가 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앙부처들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수도권으로의 집중 흐름을 전환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실제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및 비수도권 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3~50%)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기본적 지원 비율은 지역, 기업유형, 투자대상 및 지방비 매칭을 등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대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입지와 설비 투자 비용 모두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이전 지역과 따라 다르다.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입지 9% 및 설비 8% 그리고 지방비 매칭 비율 55%를 적용하는 반면,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입지 50% 및 설비 25% 그리고 지방비 매칭비율 25%를 적용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산업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비부담 비율이 높고, 지원비율도 높게 구성되어 있다.

〈표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비율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100분의 45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100분의 65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100분의 75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	-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100분의 75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5.

다만 보조금 지원에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지난해까지 해당 보조금은 기업당 국비 100억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었다. 다만 경기 침체와 보조금 지원한도의 상향 요구가 지속되어 2024년 1월 1일 부터는 개선된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절차

기본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기업을 유치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보조금 요청서류 및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부터 교부까지는 해당 주체들이 참여하며, 그 과정은 시·도지사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신청에서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지원 결정, 산업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교부, 기업의 투자 수행, 시·도의 보조금 정산과 회계법인의 검증, 기업의 사업 이행과 지방정부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점검, 끝으로 산업부와 지방정부의 사업완료 단계를 거친다.

〈그림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진행 절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도자료, 2023년 12월 27일.

202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운영 방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을 첫째,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 확대,' '미래차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 마련,' 셋째, '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유도' 등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 상향하여 지원규모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하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하였다.

〈표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등 인상 현황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균형발전 상위지역	- (설비) 3%→4%	(입지) 0%→5% (설비) 5%→6%	(입지) 9% (설비) 7%→8%	45 : 55
균형발전 중위지역	- (설비) 5%→6%	(입지) 10%→15% (설비) 7%→8%	(입지) 30% (설비) 9%→10%	65 : 35
균형발전 하위지역	- (설비) 8%→9%	(입지) 20%→25% (설비) 11%→12%	(입지) 40% (설비) 14%→15%	75 : 25
산업위기 대응지역	- (설비) 11%→12%	(입지) 25%→30% (설비) 19%→20%	(입지) 50% (설비) 24%→25%	75 : 2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도자료, 2023년 12월 27일.

보조금 지원규모(한도 및 비율) 확대

민간부문의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중견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p씩 상향하고, 모든 형태의 기업에 대해 입지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1%p씩 상향하였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조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및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첨단 신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가산비율을 적용하였는데, 기회발전특구 5%p,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p 그리고 사업재편 승인기업 2%p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3〉 특별지역에 적용하는 보조금 가산비율

구분	기회발전특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산 지원비율	5%p	2%p	2%p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도자료, 2023년 12월 27일.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원요건 탄력성 마련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넓히고 그 규모도 확대하였다. 우선, 미래차 전환기업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미래자동차 또는 미래자동차부품 전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면적 증가와 신규고용이 없더라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최소한 기존 수준의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고용요건을 완화하였다. 생산공장의 스마트화·자동화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용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완화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중견기업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였다. 끝으로 타당성 평가를 유연화하였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지표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투자규모 지표로 통합 평가하여 투자유형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향후일정과 정책기대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유효한 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2024년에 지정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조성되고, 특구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 전국에서 조성될 예정된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도자료, 2023년 12월 27일.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월간 지방시대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도미노피자 슈퍼디럭스 N+콜라(5명)

박경훈(8873) 문하나(2999) 송대철(6017) 김은주(0290) 김정은(7916)

BBQ 황금올리브 치킨+콜라(10명)

김성애(8873) 방국태(8862) 고가인(7976) 홍진희(3876) 이상현(8057)
박민선(7278) 김현호(6612) 정은옥(2999) 조광일(3381) 이원영(5120)

배스킨라빈스바라이어티팩(10명)

조규남(1032) 이주영(5946) 김소현(5149) 조혜경(3059) 최훈영(8524)
이혜윤(8057) 양진우(8115) 정균(6612) 윤혜인(4225) 민영지(7974)

버거킹 와퍼세트(15명)

최형훈(8014) 김민규(2648) 이유림(8409) 나수지(8803) 고광래(8115)
정운채(9170) 김병국(0079) 진보람(7141) 김경수(6990) 노지훈(5308)
서준영(2080) 김관현(4499) 김혜정(8839) 이지은(5010) 권영운(2178)

투썸플레이스 떠먹는 스트로베리케익(25명)

김율의(5717) 차건호(3365) 김동화(3122) 최화진(3654) 정혜분(5137)
강미자(1813) 심재덕(2036) 송흔희(2112) 박경수(0067) 김건우(1013)
황대진(4247) 김민서(1538) 김다혜(2026) 전현숙(6260) 김효진(1013)
김단우(8324) 임지민(4147) 박철운(1650) 정보람(4202) 류재필(0521)
이성국(0654) 김예지(1156) 홍재선(1587) 이희영(7240) 강은주(9371)

메가커피 아메리카노(150명)

유화정(4950) 김진선(7839) 강채윤(2884) 오아름(4762) 박재현(9314) 최민우(0373) 성락운(1039)
김영래(6507) 도지현(3618) 김진학(3748) 김혜연(8616) 유덕화(2309) 김현규(7602) 최형욱(0301)
황은정(6355) 이희수(1968) 강신구(0501) 김세용(3364) 안유진(7450) 장희선(2720) 문수운(5992)
박나영(7959) 이다솔(9181) 김민영(5277) 김우순(0493) 양호석(1701) 최영주(1755) 김가영(1054)
한미숙(9239) 이록경(9796) 김도원(4689) 강혜주(6887) 정민정(7713) 김재욱(8246) 김종대(0552)
송혜원(9817) 황현정(1404) 이재욱(7852) 유종선(2325) 변성원(3121) 이광자(0933) 문병운(7749)
최인지(6754) 김준형(6226) 정인혜(4777) 박일권(0538) 유주열(6617) 신비루(0713) 서현진(3753)
김연자(3600) 유진영(2008) 주진희(4515) 김은진(1592) 주창원(5595) 장정화(4869) 김재환(1431)
고지원(0818) 최진범(3203) 박은혜(7558) 서미정(7409) 남기웅(4996) 김유환(2090) 박재현(5457)
김주현(1703) 이선정(6978) 김병수(1716) 허소연(6634) 전미희(6417) 김은미(6381) 이진욱(5938)
정희정(1113) 김만진(7606) 성지영(2798) 박선미(7986) 최라희(7045) 김영우(4542) 정용희(0823)
이은주(7056) 김경희(1634) 김준수(3829) 안성찬(4494) 양길자(1654) 이지은(2432) 박건배(9925)
황은혜(2391) 김유신(5159) 최민경(8102) 김진만(8521) 민병훈(1595) 김상봉(2701) 허재도(3357)
정관수(3538) 강동현(5935) 장형일(6903) 원종환(2570) 구민(4479) 최병철(4890) 송성권(8292)
박형철(9600) 이혜원(4714) 김기영(7527) 장혜정(3733) 이지영(8597) 권홍목(7112) 백지인(5208)
이정훈(3867) 두한나(7663) 강명이(8402) 정진숙(2654) 서인걸(1185) 이종희(1791) 강알진(0946)
김미선(4798) 김시영(1011) 이용기(4250) 김선미(0575) 정강현(3541) 백승기(9890) 유성주(9715)
민수홍(6795) 양수진(9165) 이슬아(3271) 권성주(9691) 김태호(1407) 김지우(4119) 박미영(3989)
조애영(7273) 김하진(6979) 황석준(3558) 배소연(1926) 마경(9424) 최한솔(1307)
유예진(3527) 김준호(9398) 김필임(8797) 김태섭(4163) 박지황(2521) 신이나(4311)
최찬규(4107) 장하은(4459) 안은경(8915) 김성철(6356) 유주환(4003) 방승환(9193)
김나영(0953) 임호준(5302) 김소희(5055) 임현지(6458) 김민아(2114) 함형준(0653)

편집후기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가 생각하는 지방시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지방시대를 위해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례 및 지방시대의 토대를 닦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인물을 찾아 소개한다. 또한 타 국가의 최신 정보 및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2024년 1월호는 '부산광역시' 편으로 구성,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지방시대 칼럼』은 부산광역시장의 지방시대에 대한 철학과 고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로는 시민행복 15분 도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가덕도 신공항, 지산학 협력도시 부산의 새로운 미래, 세계적인 금융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부산광역시의 주요정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등의 축제와 역사를 간직한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기술로 세계로 미래로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기업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지방시대 해외정보』는 미국의 혁신 거점 다원화, 일본의 마을 관광거점 재생 핫플레이스로에 대한 정보를 신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와 규모 확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시도의 특별판으로 기획되어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2월호는 “경기도”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발행일 2024년 1월 10일(제113호)

발행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주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 문의 02-2170-6092